

관계절 부착 선호와 중의성 인식에 나타난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중의적 관계절 해석 양상

박지원* · 김지혜

(매호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Park, Jiwon & Kim, Ji-Hye. (2022). The interpretations of English relative clauses by Korean EFL learners in attachment preference and ambiguity percep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1), 23-44.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orean EFL learners interpret English relative clauses in two distinct tasks – an attachment preference task and an ambiguity perception task. The study also examined how different lexical-semantic factors such as preposition type (i.e., ‘of’ and ‘with’) and the animacy conditions of noun phrases (NPs) that might affect interpretations of English relative clauses. Thirty-one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esting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English relative clauses. A total of 28 test items were used to examine possible interpretations and indicate preferred interpretations of English relative clauses with different types of prepositions and animacy conditions. The overall results demonstrated the following: i) In the attachment preference task, Korean EFL students in middle school showed a preference toward high attachment (HA) interpretation for ambiguous English relative clauses. ii) On the other hand, in the ambiguity perception task, EFL students did not always realize that the relative clauses could be interpreted ambiguously. iii) As for lexical-semantic factors, relative clause interpretations were influenced by both preposition type and the animacy conditions of NPs, but only in preference attachment, not in ambiguity perception.

주제어(Key Words): 영어 관계절(English relative clause), 관계절 부착(relative clause attachment), 중의성 인식(ambiguity perception),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 한국인 영어 학습자(Korean EFL learners)

* 제1저자, 교신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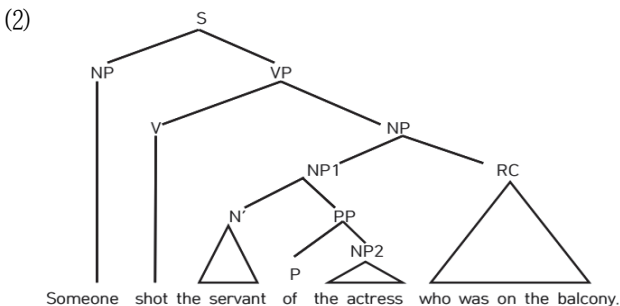
1. 서론

구문분석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처럼 같은 문장 구조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중의성(ambiguity)이라고 한다. 중의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다의어에 의해 파생되는 어휘적 중의성 (lexical ambiguity), 의미가 작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련된 영향권 중의성(scope ambiguity),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을 들 수 있으며, 영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중의성의 대표적인 예로 관계절의 해석을 들 수 있다. 아래의 문장 (1)에서는 관계절(RC) ‘발코니에 있던 사람(who was on the balcony)’이 NP1, NP2 중 어느 명사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하는데, 관계절을 NP1인 ‘하인(the servant)’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NP2 ‘여배우(the actress)’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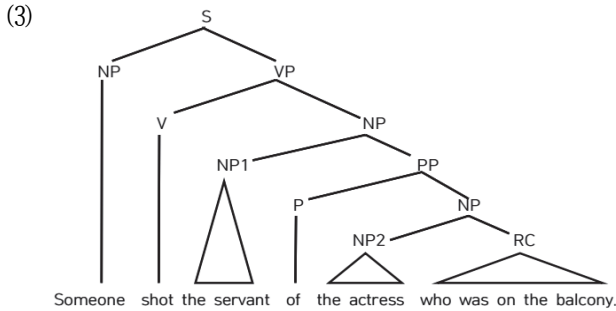
(1) Someone shot the servant of the actress who was on the balcony.

NP1 NP2 RC

위의 문장에 대한 가능한 관계절 해석을 문장의 구조와 함께 각각 살펴보면, 관계절이 NP1을 수식하는 경우는 문장을 (2)와 같은 구조로 파악한 것이며, 두 명사구 모두 관계절에 의해 부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장의 구조상 더 상위에 있는 NP1에 관계절을 부착시켜 해석하는 것을 상위부착(high attachment: HA)이라 한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관계절이 NP2에 부착되어 문장을 (3)과 같은 구조로 파악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NP2는 NP1보다 문장의 구조상 하위에 존재하는 명사구로 관계절이 NP2를 수식하므로 하위부착(low attachment: LA)이라고 부른다.



영어 관계절 해석 경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언어에 따라 나타나는 해석 선호도와 모국어의 전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Carreiras & Clifton, 1993; Cuetos & Mitchell, 1988; Dussias, 2003; Fernández, 1999, 2003; Frazier, 1987; Frazier & Clifton, 1996; Ehrlich et al., 1999; Quin et al., 2000; Kim, 2010; Kweon, 2015; Lee & Kweon, 2004; Lim, 2012). 하지만, 제2언어 학습자/외국어 학습자 중에서도 목표언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과연 해당언어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이 이러한 중의적 영어 관계절 해석에서 어떤 부착 선호도를 보이는지, 또한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검사과제를 사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중의적 관계절 문장해석에 관한 이론

2.1.1. 중의적 관계절 해석의 부착 선호도와 종결 지연의 원리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중의적 영어 관계절을 해석할 때 하위 부착(LA)을 선호한다고 보고되었다(Carreiras & Clifton, 1993; Cuetos & Mitchell, 1988; Dussias, 2003; Fernández, 1999; Frazier, 1987; Frazier & Clifton, 1996). Frazier(1987)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하위부착 선호 경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4)와 같은 종결 지연 원리를 제안하였으며, 이 원리가 모든 언어의 문장처리 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4) 종결 지연(Late closure, Frazier, 1987, p. 562)

문법적으로 가능하면, 새로운 어휘 항목을 최근에 처리되는 구 또는 절에 부착하라.

한편, 이러한 종결 지연의 원리가 문장처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권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의적 관계절 부착 선호도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언어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보고되었다. 아랍어, 노르웨이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등의 모국어 화자들은 종결 지연의 원리에 부합하는 하위부착(LA) 선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과 함께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들은 중의적 관계절을 해석할 때 상위부착(HA) 선호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rreiras & Clifton, 1993; Cuetos & Mitchell, 1988; Ehrlich et al., 1999; Fernández, 2003; Frenck-Mestre & Pynte, 1997; Gilboy et al., 1995; Hemforth et al., 1998; Jun & Koike, 2008; Kamide & Mitchell, 1997; Kweon, 2015; Lee & Kweon, 2004; Lim, 2012; Maia et al., 2007; Mitchell et al., 1990; Quin et al., 2000; Zagar et al., 1997). 이렇듯 상당수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이 상위부착을 선호한다는 것은 종결 지연의 원리가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로 간주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적 접근들이 시도되었다.

2.1.2. 최신성 선호와 술어 근접성의 원리

Gibson 외 3인(1996)은 언어 간 부착 선호도 차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원리로서 최신성 선호와 술어 근접성을 제안하였다. 아래 (5a)의 최신성 선호 원리에서는 종결 지연의 원리와 같은 개념으로 가장 최신성이 높은 (가장 최근에 처리된) 구에 새로운 문장 성분을 부착하라 하는 반면, (5b)의 술어 근접성 원리는 술어구의 핵어(head, 즉 동사)에 구조적으로 더 가깝게 부착하여 해석하라 한다.

(5) a. 최신성 선호(Recency preference)

새로운 어휘 항목의 구조를 더 최근에 형성된 구조에 선호하여 부착하라.

b. 술어 근접성(Predicate proximity)

술어구의 핵어에 가능한 가깝게 부착하라.

Gibson 외 3인(1996)은 최신성 선호가 보편적인 언어 처리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술어 근접성의 원리와 상호작용하여 문장이 처리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스페인어 문장 (6a)와 영어문장 (6b)를 각각 해석하게 하여 중의적 관계절에서의 부착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6a-b)의 문장에서는 각각 관계절이 밀줄 친 3개의 명사구 NP1, NP2, NP3에 부착 가능하여 3가지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구는 주어, 술어, 보충어와 같이 문장의 필수적 요소들을 말하며, 이들은 보편적 구문분석 원리인 종결 지연의 원리에 의해 처리된다. 반면 비주요 구는 문장에 부가적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관계절, 부사구, 접속사구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8)와 같은 해석 원리에 의해 처리된다(Frazier & Clifton, 1997).

(8) 해석 원리(Construal principle, Frazier & Clifton, 1996, pp. 41-42)

- a. 주요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없는 구 XP는 최근의 의미처리 영역과 연합하라.
- b. 그 영역 안의 XP를 구조적 그리고 비구조적(해석적) 원리를 이용하여 해석하라.

해석 원리에 따르면, 보편적 구문분석의 원리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비주요 구들은 일단 가장 최근의 의미처리영역과 연합(association)한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적 정보를 통해 결합하던 부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구조적 정보뿐만 아니라 의미적, 화용적 요소와 같은 비구조적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결합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요 구가 연합하는 최근의 의미처리영역은 (9)과 같이 정의된다.

(9) 최근의 의미처리영역(Frazier & Clifton, 1996,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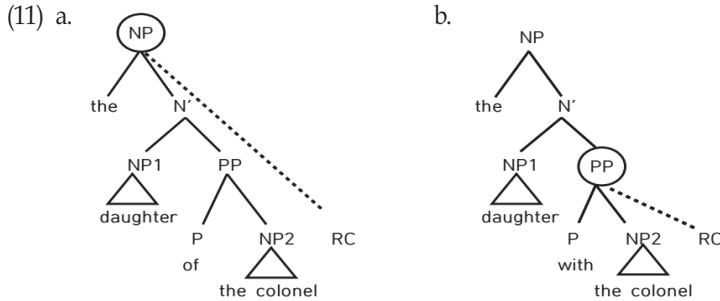
마지막 의미역할당자의 확장된 최대 투사 범위.

의미처리영역이란 의미역할당자(theta-assigner)가 의미역을 할당하는 범위를 말하고, 비주요 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형성된 의미처리영역과 연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연합하는 의미처리영역은 (9)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마지막 의미역할당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의미역할당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최대 투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봄으로써 의미처리영역을 알 수 있다. 아래 (10a)와 (10b)는 각각 전치사 of와 with으로 연결된 복합명사구가 관계절에 의해 수식을 받는 형태의 문장이다. 그러나 관계절이 연합할 때에 마지막 의미역할당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의미처리영역은 다르게 형성된다.

(10) a. I interviewed the daughter of the colonel who had had the accident.

b. I interviewed the daughter with the colonel who had had the accident.

각 문장의 명사구가 뒤이어 오는 관계절과 연합하는 관계를 수행도로 나타내면 (11a), (11b)와 같다.



위의 (11a)의 전치사구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는 보충어(complement)로 앞뒤 명사구의 의미가 밀접하게 연결되며, 전치사 of가 스스로 의미역을 할당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마지막 의미역할당자는 ‘daughter’이며 이것의 최대 투사범위인 상위 NP 전체가 의미처리영역이 된다. 따라서 관계절이 상위 NP 전체와 연합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관계절이 수식할 수 있는 명사는 ‘daughter’과 ‘colonel’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11b)에서는 전치사구가 부가어(adjunct)로 문장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치사 with이 스스로 의미역을 할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역할당자 with의 최대 투사범위인 PP가 의미처리영역이 되고, 이어지는 관계절이 PP와 연합할 때 의미처리영역 내 수식 가능한 명사구는 ‘colonel’ 단 하나뿐이므로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복합명사구에서 전치사 of는 스스로 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하므로 의미처리영역을 확대하여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전치사 with은 스스로 의미역을 할당하여 의미처리영역을 자신의 최대투사범위 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의미역을 할당하는 전치사 with이 명사구에 사용되었을 때 관계절의 하위부착 선호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지지 되어왔다(Felser et al., 2003; Gilboy et al., 1995; Papadopoulou & Clahsen, 2003; Traxler et al., 1998). Fernández(1999)는 영어 모국어 화자, 10세 이전에 영어를 습득한 스페인인 영어 학습자, 10세 이후에 영어를 학습한 스페인인 영어 학습자의 총 세 집단을 대상으로 전치사 of와 with이 사용된 복합명사구와 중의적 관계절 문장에서 명사구에 대한 부착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 결과, 세 집단 모두 전치사 with이 사용되었을 때에 하위부착 경향이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하위부착 선호의 정도는 영어 모국어화자, 10세 이전 영어를 학습한 스페인인 영어 학습자, 10세 이후 영어를 학습한 스페인인 영어 학습자 집단의 순서로 강하게 나타났다.

Papadopoulou와 Clahsen(2003)은 그리스어 모국어 화자,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스페인인, 독일인, 러시아인 화자 총 네 집단을 대상으로 그리스어 중의적 관계절의 부착 선호도를 연구하였으며, 검사 문항은 전치사 of와 with이 사용된 복합명사구와 관계절로 이

루어졌다. 연구 결과, 전치사 of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리스어 모국어 화자 집단만 상위부착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세 집단의 경우 어떠한 부착 선호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치사 with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네 집단 모두 하위부착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2.2.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해석에 관한 선행 연구

2.2.1. 영어 중의적 관계절 부착 선호도 연구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중의적 관계절 부착 선호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대부분이 상위부착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부착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Kim(2010)은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중의적 영어 관계절에서 부착 선호도와 모국어 처리전략의 전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계절 해석에서 NP1을 선택하여 상위부착한 응답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또한, Park(2010)은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절의 빈칸에 내용을 직접 완성하는 과업을 통해 그들이 빈칸에 작성하는 동사가 어느 명사구와 수 일치하는지에 따라 부착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참여자들이 상위부착을 더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an(2012)은 한국인 EFL 대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중의적 관계절 문장을 읽고 이어지는 이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선택하게 하여 부착 선호도를 파악하였고, 검사 결과 대학생 집단은 80.9%, 고등학생 집단은 58.1%가 상위부착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해석선호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검사를 적용한 연구들도 있었다. Park(2014)은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유사인터뷰(quasi-interview)를 통해 영어 중의적 관계절의 부착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오프라인 검사 결과, 71.2%의 응답이 상위부착 경향을 보여주었고, 온라인 검사에서는 하위부착 응답의 빈도가 54.2%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통사적 요소 이외에도 기억력의 한계나 의미적 단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문장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어, 각각 다른 종류의 검사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상위부착을 선호한다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모기룡(2010)은 10세 이후에 영어학습을 시작한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검사를 통해 영어 중의적 관계절에서의 부착 선호도를 알아보았으며, 온라인 검사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한 검사에서는 전체 문항 총 332개의 응답 중 상위부착 응답이 293개로 나타났다. Jung(2010)은 한국인 EFL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ESL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중의적 관계절 부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상위부착, 한국인 ESL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하

위부착 경향을 더 강하게 보여주었다.

2.2.2. 어휘-의미적 정보와 관계절 부착 선호도 연구

2.2.2.1. 전치사와 관계절 부착 선호도

관계절 부착의 선호도는 관계절을 이끄는 명사구를 취하는 전치사의 종류라든지 관계절이 부착될 수 있는 두 명사구의 유생성 조건과 같은 다양한 어휘-의미적 정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Kweon(2003)은 해석 이론이 제2언어 습득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치사 of와 with이 사용된 중의적 영어 관계절 해석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검사 결과 전치사 of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상위부착의 경향이 57.78%로 더 높았고, 전치사 with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하위부착의 경향이 51.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후에 Kweon(2015)은 한국인 EFL 성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중의적 영어 문장처리에서 어휘-의미적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검사를 통해 부착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오프라인 결과, 전치사 of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상위부착 응답이 71%, 전치사 with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하위부착 응답이 68%로 나타나 전치사에 따른 부착 선호도의 차이가 이전 연구에 비해 더 명확히 나타났다.

2.2.2.2. 유생성과 관계절 부착 선호도

송예림(2011)은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구의 유생성이 영어 중의적 관계절에서 부착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두 단계의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검사에 사용된 문장은 첫 번째 명사구의 유생성만을 달리하여 유생명사-유생명사 AA(animate, animate)와 무생명사-유생명사 IA(inanimate, animate) 두 가지 유형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 상위부착 응답이 80%를 차지하였다. 유생성 조건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IA보다 AA 조건에서 상위부착 선호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를 명사구의 유생성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유생성의 조합을 AA와 IA의 단 두 가지만으로 구성하여 검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AI 그리고 II 조건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고 유생성에 따른 선호도 양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실험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도 나타났고, 실험 검사 도구의 유형이나 실험 대상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정도의 관계절 해석 선호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특정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절 해석의 양상을 다양한 유형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관계절 해석에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의미적 정보가 각기 다른 검사 유형에서 유사하게 작용하는지의 여부에도 유념하여 실험 도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EFL/ESL 학습자들의 영어 중의적 관계절의 언어처리를 연구한 온라인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관계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거쳐 중의성 해소 이후 선호되는 해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연구 참가자들의 언어처리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오프라인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습자들의 중의성 인식(ambiguity perception)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피험자들이 관계절이 중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 가운데 부착선호도(attachment preference)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착선호도 실험에서 사용된 유사한 문항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동시, 과연 실험 참가자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들에서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검사과제를 사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와 중의적 해석 가능성의 인식 정도를 어휘-의미적 정보인 전치사와 유생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은 중의적 영어 관계절을 해석할 때 상·하위 명사구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여 부착할 것인가?
2.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은 영어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3. 전치사의 종류나 선행사의 유생성과 같은 어휘-의미적 정보는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나 중의성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재 M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통해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6개월 이상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사전 문법검사를 통해 관계절 구조를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제외한 31명의 참가자를 최종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검사 도구에 대한 영어 원어민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3명의 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참가한 원어민들은 모두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관계절 해석에 있어서 하위부착(LA)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 도구

3.3.1. 1단계 검사: 부착 선호도 검사

1단계 검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던 검사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의적 영어 관계절의 부착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관계절 이해 질문에 대한 선택형 응답 유형의 문항은 총 28개로, 목표 문항에는 중의적 관계절이 포함된 영어문장들을 사용하였고, 필러 문항에는 중의성이 없는 관계절과 비관계절의 중의적 문장들을 제시하여 실험 참가자가 검사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목표 문항은 중의적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구를 어느 것으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응답자의 부착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검사에 사용된 문항의 예시는 아래의 (12)과 같다. 참여자가 보기 ①을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 상위부착으로, ②를 답으로 선택하면 하위부착으로 간주하였다.

(12) Andrew met the friend of his father that was in the hospital.

Q: 병원에 있던 것은 다음 중 누구인가요? ① the friend ② his father

목표 문항의 문장은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사구 내 전치사 of, with의 2가지와 복합명사구의 유생성 조건 AA(animate, animate), AI(animate, inanimate), IA(inanimate, animate), II(inanimate, inanimate) 4가지를 조합하여 총 8개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1. 검사 문항의 유형

유형	전치사	유생성	예시
1	of	AA	Andrew met <u>the friend of his father</u> that was in the hospital.
2		AI	Tim interviewed <u>the actor of the movie</u> that he liked a lot.
3		IA	Paul read <u>the lists of the applicants</u> that were in the room.
4		II	Sam read <u>the preface of the book</u> that was impressive.
5	with	AA	Sue called <u>the boss with the driver</u> that was on the news.
6		AI	David saw <u>the woman with the bag</u> that was beautiful.
7		IA	Kelly liked <u>the lake with the ducks</u> that looked big.
8		II	Tim didn't like <u>the steak with the potato</u> that was salty.

3.3.2. 2단계 검사: 영어 관계절 중의성 인식 양상 파악

2단계 검사에서는 부착선호 검사에서 알 수 없는 참가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중의성 인식여부를 조사하고자, 1단계에서 사용한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들을 사용하여 18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영어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한 해석가능성에 대한 O/X 선택형 문항을 제시하였고, 각 해석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해석의 자연스러움을 추가로 표시하는 수용성(acceptability) 판단형 문항을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아래 (13)에 나타난 예시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각 명사구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 O 또는 X에 체크 하고, O에 체크 한 경우에만 해석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판단하여 0부터 100 사이의 수치 선상에 표시하도록 안내하였다.

(13) Evelyn liked the house with the roof that was brown.

갈색인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the house	O / X	0	50	100
		부자연스러움	보통	자연스러움
the roof	O / X	0	50	100
		부자연스러움	보통	자연스러움

참가자들이 두 명사구 모두 O에 표시하면 해당 문장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반면에 하나의 명사구에만 O를 표시하면 중의적 해석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해석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표시하는 수용성 척도에 대한 반응은 참가자들의 중의성 인식 정도, 혹은 한 명사구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상의 참조 도구로 사용하였다. 2단계에 사용된 검사 문장들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유생성의 조건을 조합하여 총 8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검사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개별 인터뷰에 동의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록한 참여자 중 9명을 선정하여 전화 통화, 문자, 이메일로 검사 응답에 대한 생각의 과정과 중의적 해석 가능성의 인식에 관련된 추가적 정보를 얻어 결과 분석에 참조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 및 어휘-의미 요소의 영향

1단계 부착 선호도 검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결과로는, 전체 744개의 응답 중에서 NP1(상위부착)을 선택한 응답이 413개(55.51%)로 NP2(하위부착)을 선택한 응답 331개(44.49%)에 비해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들이 중의적 영어 관계절을 해석할 때 하위부착보다 상위부착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한국어 중의적 관계절에서 상위부착을 선호하는 반면 (Kweon, 2015; Lee & Kweon, 2004; Lim, 2012),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중의적 관계절에서 하위부착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실험 참가자들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문장해석 전략을 영어 관계절 문장해석에 적용하여 관계절 해석 시 상위부착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한국어가 술어 근접성 (Gibson 외 3인, 1996)의 원리로 상위부착이 선호되므로, 관계절 해석에서 상위부착에 익숙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국어 전이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치사의 종류(of, with)에 기인한 어휘-의미적 정보가 참여자들의 부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치사 of가 이끄는 관계절을 포함한 문장들에 대한 따른 참여자들의 응답 양상은 전체 372개 응답 중 NP1 선택 응답이 258개로 69.35%, NP2 선택 응답이 114개로 30.65%를 차지하여 상위부착의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전치사 with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전체 372개 응답 중 NP1 선택 응답이 155개로 41.67%, NP2 선택 응답이 217개로 58.33%를 차지하여 하위부착 선호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치사의 종류가 참여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행한 결과, 전치사의 종류가 참여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57.74, p < .05$). 이러한 결과는 전치사 of가 사용된 구는 보충어로 앞뒤 두 명사구 간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스스로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지만, 전치사 with이 사용된 구는 부가어로 스스로 의미역을 할당하여 의미처리영역을 자신이 속한 전치사구 안으로 제한하여 결국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해석 이론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두 명사구의 유생성이 참여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생성 조건 AA, AI, IA, II의 명사구 선택 응답 수와 비율을 알아본 결과 유생성의 조건 중 AA, II, IA 조건 순으로 상위부착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생성 조건별 186개의 응답 중 AA에서는 121개(65.05%), II에서는 107개(57.53%), IA에서는 100개(53.76%)의 응답이 NP1을 선택하여 상위부착 선호도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AI 조건에서는 NP2를 선택한 응답의 수가 101개로 54.30%를 차지하여 유일하게 하위부착의 선호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유생성 조건이 참여자들의 중의적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행한 결과, 유생성 조건이 참여자들의 부착 선호도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chi^2 = 14.64, p < .05$).

전치사 종류와 명사구의 유생성 조건에 따른 관계절 해석 선호도는 아래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상위부착(NP1)을 선호하였으나, 관계절을 이끄는 전치사가 with일 경우에는 두 명사구 NP1과 NP2가 모두 유생성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부착(NP2) 선호 경향을 보였다. 이를 볼 때, 전치사의 종류와 유생성 조건에 따

라 관계절 해석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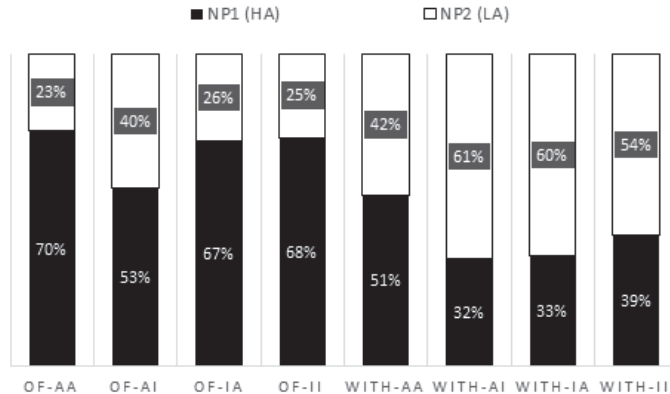


그림 1. 전치사와 유생성에 따른 명사구 선호도

이러한 결과 양상으로 볼 때, 어휘-의미적 정보인 전치사와 유생성 두 요인 모두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의 중의적 관계절 부착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참여자들이 중의적 관계절 해석에서 통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의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계절과 명사구의 거리 및 위치, 문법적 구조 등과 같은 통사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었으나, 관계절의 의미와 더 자연스러운 명사구를 골랐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전치사 with이 사용된 경우 뒤에 오는 명사구가 앞의 명사를 더 꾸며주는 느낌이 드는데, 전치사 of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두 명사구 모두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응답하여, 보충어와 부가어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지식 없이도 두 전치사의 의미적 역할에 대해 상당 부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4.2. 영어 관계절 중의적 해석 가능성 인식 정도 및 어휘-의미 요소의 영향

한편 2단계 중의성 인식 검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496개 중 중의적 해석을 한 응답은 283개(57.06%), 비중의적 해석을 한 응답은 213개(42.94%)로, 참가자들이 중의성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수준(57.06%)을 보였다. 로그우도분석(Loglikelihood) 결과, 응답 가운데 중의적 해석비율이 비중의적 해석비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LL=32.86, $p < .01$), 중의성 인식을 전제로 한 부착선호도 연구들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비율이 42.94%라는 사실은 가히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명한다면, 참가자들은 많은 경우 관계절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쪽 명사구만을 정답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1단계 부착선호 검사에서 참가자들이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2단계 검사 과정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두 단어 모두 O에 표시하라'는 지시를 통해 중의적 해석에 대한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가자들의 반응 중 절반가량이 여전히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선행연구들에서 ESL/EFL 학습자들의 관계절 해석 선호도를 조사할 때 실험 참가자들이 반응했던 답들은 중의성을 인식한 가운데 한쪽 해석을 '선호'하는 답과 중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쪽만이 '해석 가능'하다고 반응한 답이 섞여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후 인터뷰에서 중의적 해석을 한 학생들조차도 관계절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문항을 풀 때 헛갈리긴 하지만 하나의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볼 때,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절 학습이나 교수에 있어서 중의적 해석가능성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을 상기 시키게 된다.

한편, 전치사의 종류가 중의적 해석 가능성 인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치사의 종류에 따른 중의적 해석과 비중의적 해석 응답 수를 알아본 결과, 전치사별 248개의 응답 중 of가 쓰인 명사구의 경우 142개의 응답(57.26%)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며, 전치사 with이 쓰인 명사구의 경우 141개 응답(56.85%)이 중의적이라는 응답을 받아 두 전치사 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전치사가 영어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2 = 0.01, p > .05$).

또 다른 한편으로 유생성이 참여자들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 인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유생성 조건에 따른 중의적 해석과 비중의적 해석 응답 수를 살펴본 결과, 유생성 조건별 124개 응답 중, AA는 72개 응답(58.06%), AI는 63개 응답(50.81%), IA는 73개 응답(58.87%), II는 75개 응답(60.48%)을 보여 각 조건별로 중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생성의 조건이 참여자들의 영어 관계절 중의적 해석 가능성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행한 결과, 유생성이 참여자들의 영어 관계절 중의적 해석 인식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79, p > .05$).

4.3. 명사구 해석의 수용성 점수 양상과 중의성에 대한 인식 정도

2단계 중의성 인식 검사에서는 주어진 문장에서 NP1과 NP2가 각각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를 묻는 동시에, 각 해석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0에서 100까지의 수치 선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명사구 간 수용성의 점수 차이를 통해 중의성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두 명사구의 수용성 점수 차이가 작게 나타난다면, 두 명사구의 해석상 자연스러움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문장의 의미를 더 중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두 명사구 간의 점수 차이가 크다면 특정 명사구의 해석 가능성을 다른 명사구에 비해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전치사와 유생성을 독립변수로 명사구 간 수용성 점수 차이를 종속변수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행한 결과, 아래의 표 2와 같은 기술통계 결과가 나타났다.

표 2. 명사구 간 점수 차 이원분산분석 기술통계

전치사/유생성	AA	AI	IA	II
of	M: 53.85 (S.D.: 36.86)	M: 49.21 (S.D.: 38.38)	M: 49.44 (S.D.: 36.27)	M: 52.23 (S.D.: 6.11)
with	M: 47.48 (S.D.: 35.89)	M: 59.82 (S.D.: 37.61)	M: 48.32 (S.D.: 35.08)	M: 50.56 (S.D.: 36.53)

이원분산분석의 결과, 전치사와 유생성의 조건이 명사구 간 점수 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치사 $F(1, 488) = 0.01, p > .05$; 유생성 $F(3, 488) = 0.01, p > .05$), 전치사와 유생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488) = 1.21, p > .05$).

5.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의 영어 중의적 관계절에서의 부착 선호도와 관계절 중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두 가지의 다른 검사 도구를 통해 어휘-의미적 정보인 전치사 및 유생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의 전반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착선호도 검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이 영어 중의적 관계절을 해석할 때 상위부착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의적 관계절 해석 전략의 모국어 전이 가능성 뿐만 아니라, Gibson 외 3인(1996)이 주장했던 술어 근접성의 원리의 작용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어휘-의미적 정보인 전치사와 유생성이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의 부착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치사 with이 사용되었을 때 참여자들의 하위부착 선호도가 높아져 해석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유생성의 네 가지 조건 중 AI

에서 특히 하위부착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 인터뷰 응답 중에서도 관계절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명사구를 고르는 데에 집중했다는 응답이 다수 나타나,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이 문장 해석에서 다양한 의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반면, 선행연구들에서 되어지지 않았던 중의성 인식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의 영어 관계절 중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절반을 웃도는 응답이 주어진 문장을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응답은 중의적 문장을 비중의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중의적 해석을 한 학생들조차 사후 인터뷰에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줄은 몰랐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중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의성 인식 검사에서 나타난 전치사의 종류와 유생성 조건 등의 어휘-의미적 요소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한국인 중학교 EFL 학습자들은 중의적 영어 관계절 해석 선호도는 상위부착 경향을 더 강하게 보였고, 중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절이 복합명사구를 수식할 때 구조적 중의성을 가진다는 것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반면,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에서 나타나는 관계절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 EFL 중학교 학습자들에게 영어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중의성이 발생했을 때 유연한 해석 전략을 취하여 보다 정확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을 대상으로 40분 미만의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를 마치도록 실험 문항을 설계하여 실험 문항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문장유형별 토큰을 더 사용하고 필러 문항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 문항에서 질문이 한글로 제시되어 참여자들이 영어 관계절을 해석하는 데에 모국어인 한국어 문장처리 전략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항 응답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실제 응답 과정에서는 목표 언어인 영어문장만을 읽도록 검사를 구성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관계절을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기존 참가대상이었다던 61명 가운데 절반 정도의 인원만이 결과 분석대상으로 제한되어, 실험집단의 크기를 늘리거나 관계절 습득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고등학교 이상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주제였던 중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EFL 학습자 전반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모기룡. (2010). 한국인의 영어 문장 처리전략: 관계절 구문의 중의성 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예림. (2011).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관계절 부착 선호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rreiras, M., & Clifton Jr, C. (1993). Relative clause interpretation preferences i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 and Speech*, 36(4), 353-372.
- Cuetos, F., & Mitchell, D. C. (1988). Cross-linguistic differences in pars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late closure strategy in Spanish. *Cognition*, 30(1), 73-105.
- Dussias, P. E. (2003). Syntactic ambiguity resolution in L2 learners: Some effects of bilinguality on L1 and L2 processing strategi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 529-557.
- Ehrlich, K., Fernández, E. M., Fodor, J. D., Stenshoel, E., & Vinereanu, M. (1999). *Low attachment of relative clauses new data from Swedish*. Poster presented at the 12th Conference on Human Sentence Processing. New York, NY.
- Felser, C., Roberts, L., Marinis, T., & Gross, R. (2003). The processing of ambiguous sentences by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ers of English. *Applied Psycholinguistics*, 24(3), 453-489.
- Fernández, E. M. (1999). Process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ome preliminary results. In E. Klein & G. Martohardjono (Eds.),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grammars: A generative approach* (pp. 217-240). Amsterdam: John Benjamins.
- Fernández, E. M. (2003). *Bilingual sentence processing: Relative clause attachment in English and Spanish*. Amsterdam: John Benjamins.
- Frazier, L. (1987). Sentence processing: A tutorial review. In M. Coltheart (Ed.), *Attention and performance* (pp. 559-586). Hillsdale: Erlbaum.
- Frazier, L., & Clifton, C. (1996). *Construal*. Cambridge, MA: MIT Press.
- Frenck-Mestre, C., & Pynte, J. (1997). Syntactic ambiguity resolution while reading in second and native language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0(1), 119-148.
- Gibson, E., Pearlmutter, N., Canseco-Gonzalez, E., & Hickok, G. (1996). Recency preference in the human sentence processing mechanism. *Cognition*, 59(1),

23-59.

- Gilboy, E., Sopena, J. M., Clifton Jr, C., & Frazier, L. (1995). Argument structure and association preferences in Spanish and English complex NPs. *Cognition*, 54(2), 131-167.
- Han, H. (2012). Language transfer in parsing relative clause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1), 1-15.
- Hemforth, B., Konieczny, L., Scheepers, C., & Strube, G. (1998) Syntactic Ambiguity Resolution in German. In D. Hillert (Ed.), *Sentence processing: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p. 293-312). San Diego: Academic Press.
- Jun, S. A., & Koike, C. (2008). Default prosody and relative clause attachment in Japanese. *Japanese-Korean Linguistics*, 13, 41-53.
- Jung, T.-R. (2010). The influence of L1 on processing relative clause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Kamide, Y., & Mitchell, D. C. (1997). Relative clause attachment: Nondeterminism in Japanese parsing.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6(2), 247-254.
- Kim, J. H. (2010). L1 transfer in L2 relative clause attachment.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3), 115-134.
- Kweon, S.-O. (2003). Construal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9(1), 93-108.
- Kweon, S.-O. (2015). Lexical sensitivity in processing syntactic ambiguity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1(4), 79-103.
- Kweon, S.-O. (2015). Processing strategies of relative clause attachment i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Modern Grammar*, 83, 95-119.
- Lim, N.-S. (2012). Processing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High vs. Low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3), 719-736.
- Maia, M., Fernández, E. M., Costa, A., & Lourenco-Gomes, M. D. C. (2007). Early and late preferences in relative clause attachment in Spanish and Portuguese. *Journal of Portuguese Linguistics*, 6(1), 227-250.
- Mitchell, D. C., Cuetos, F., & Zagar, D. (1990). Reading in different languages: Is there a universal mechanism for parsing sentences? In D. Balota, G. B. Flores d'Arcais, & K. Rayner (Eds.), *Comprehension processes in reading* (pp. 285-302). Hillsdale: Erlbaum.
- Papadopoulou, D., & Clahsen, H. (2003). Parsing strategies in L1 and L2 sentence processing: A study of relative clause attachment in Greek.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 501-528.

- Park, B.-J. (2010). Sentence processing of EFL learners in English relative clause attachmen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8(2), 69-88.
- Quinn, D., Abdelghany, H., & Fodor, J. D. (2000). *More evidence of implicit prosody in silent reading: French and Arabic relative clauses*. Poster presented at the 13th Annual CUNY Conference. La Jolla, CA.
- Traxler, M. J., Pickering, M. J., & Clifton Jr, C. (1998). Adjunct attachment is not a form of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9(4), 558-592.
- Zagar, D., Pynte, J., & Rativeau, S. (1997). Evidence for early closure attachment on first pass reading times in French.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0(2), 421-438.

부록 : 1단계 실험에 사용된 문항들*

1. Justin found the book of his friend that was in the room.
2. Sam read the preface of the book that was impressive.
3. Zoe met the friend with the man that worked in the museum.
4. Sue called the boss with the driver that was on the news.
5. Kate called the manager of the lawyer that was at the meeting.
6. Daniel told the boy to clean his room before having dinner.
7. Andrew met the friend of his father that was in the hospital.
8. Jack cleaned the farm with the horses that he liked a lot.
9. Charles had the picture of the building that looked old.
10. Tim didn't like the steak with the potato that was salty.
11. George liked the dress of the designer that was beautiful.
12. Rose called Mary while she was going to school in the morning.
13. Jenny liked the secretary of the lawyer that was from London.
14. Rachel liked the singer of the song that was very popular.
15. Dan liked the manager with the lawyer that was from Paris
16. Tim interviewed the actor of the movie that he liked a lot.
17. Kate called the boss of the company that was in Seoul.
18. Mr. Kim liked the director of the movie that always worked hard.
19. Tim watched the movie with the actors that won the award(s).
20. Evelyn saw the building with the window that was big.
21. Kevin interviewed the coach with the jacket that looked nice.
22. David saw the woman with the bag that was beautiful.
23. Jenny saw the man that was drawing a picture on the bench.
24. Jordan was at the door of the house that was white.
25. Kelly liked the lake with the ducks that looked big.
26. Charlotte found the box with the ribbon that was blue.
27. Paul read the lists of the applicants that were in the room.
28. William saw the musician with the guitar that was good.

* 2단계 실험은 같은 구조와 유형의 문장을 명사만 바꾸어 사용하였다.

박지원

4226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칠을로 106

매호중학교 교사

전화: (053)232-7400

이메일: jiwonpark0928@gmail.com

김지혜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2대학 영어교육학과 부교수

전화: (043)230-3553

이메일: jkim@knue.ac.kr

Received on February 11,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2, 2022

Accepted on March 31, 2022